

## 1.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vs기계,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학과 이하영

이제는 만성적인 고용 감소를 경제 내적인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은 인간과만 경쟁하지 않고, 기계, 특히 컴퓨터와도 경쟁한다. 어떤 이들은 노동의 종말(End of work)을 외치며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고까지 예상한다. 책 <기계와의 경쟁>의 저자는 이 세계가 현재, 마치 지난 산업혁명기와 유사하게, “거대한 재구조화(Great Restructuring) 시대 초입에 있다”고 선언한다.<sup>1</sup>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으며 전자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후자의 영역을 침공하고 있다. 패턴 인식이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등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겨진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창의성과 직관이란 최후의 보루만을 남겨두고 컴퓨터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수호하려 고전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간 중에서도 저숙련의 일반 노동자들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확실히 패배하고 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생산성도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고용은 늘지 않는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생산 기술이든 그것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는 늘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패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향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그러한 편향적 성장의 촉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를 낳는다. 동시에 “제도와 인간의 기량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이 “기술적 실업에 직면하지 않도록 인간의 역량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sup>2</sup>

이와 같은 고용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저자는 “인간과 컴퓨터의 아름다운 파트너십”<sup>3</sup>을 내놓는다. 인간과 기계는 서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에 임함으로써 서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협동은 (주로 창업을 통한)구조적 혁신과 인적 자본의 능력 향상을 요구한다. 컴퓨터를 통해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으로 인간의 기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기계와의 경쟁>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새로이 열어젖힐 디지털 프론티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마무리된다.

고용을 두고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에서마저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16동 앞의 ‘감골식당’에선 올해 초부터 식권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판매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카드 등록 절차 때문에 번거로워 했지만 이제는 빠른 계산 처리에 편의를 느끼고 있다. 식권 판매와 같은 단순한 업무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산업 현장과 공장에서는 한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인간을 성공적으로 대신하고 있을까?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오늘날 정보의 혁명기에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혁신과 교육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타 국가와는 조금 다른 출발점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만 특수한 여러 사회적인 상황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2015년 지금 한국 사회는 위험기피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을 혁신하라”며

<sup>1</sup> <기계와의 경쟁>,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매카피, 2013, 틱움, p.36

<sup>2</sup> 같은 책, pp. 106-107

<sup>3</sup> 같은 책, pp. 114-115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 기피가 두드러지는데, 고시의 합격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정 공무원직은 100: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창의적인 업무 환경 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세태를 잘 보여준다.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집착은 제도/구조적 혁신과 창업을 어렵게 한다.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면 철이 없거나 먼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식의 편견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도 편재해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블루 오션이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산업에서는 더욱 창업을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sup>4</sup>

둘 째, 한국의 교육은 디지털 프론티어를 개척할 창조적인 모험가를 기르기보다는 제공되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기만 하는 스폰지들을 양성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의무화된 사교육과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할뿐더러,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그에 걸맞은 지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진로보다 진학이 우선시되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꿈꾸기 어렵다. 주어진 문제의 유일한 정답만을 쫓아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혁신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대담하게 채택하고 활용하는 일을 방해하는 심리적 배경이 된다.

기초학문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우리 사회는 압축된 근대화를 겪으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급함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빨리 내기 힘든 기초학문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풍조를 낳았다. 예컨대 인문학은 가난한 학문이란 꼬리표를 달게 되었으며 취업이 쉬운 응용학문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문의 발전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기초학문은 응용학문이 눈부신 성과를 보이다가 막다른 골목,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약적인 돌파구를 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컴퓨터의 한계점을 양자 컴퓨터가 넘어선 것은 양자에 대한 물리학적 탐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역시 초조함을 버리고 기초 학문의 진흥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응용 학문도 날개를 달고 더 멋진 하늘로 날아올 수 있고, 디지털 프론티어를 선도할 기술을 발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역시 인간과 기계가 협동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구조의 혁신과 교육의 진흥이 필요한데, 한국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는 안정에 대한 사회적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주입식 교육과 기초학문의 평가 절하이다. 이 두 장애물을 딛고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더 큰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함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기초학문을 진흥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인간이 기계로부터 고유의 영역을 수호하고 나아가 협력까지 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배경이 한국에서 형성될 수 있다.

---

<sup>4</sup> 그러나 이러한 위험 기피가 안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포기임을 생각하면, 사회 전반의 '안정 중독'을 쉽게 비난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이 뿌리 깊고 복잡함을 알 수 있다.